

'꿈의 무대' 호남예술제 28일 막 오른다

5월28일까지 한달동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5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 호남신학교 음악홀 등에서 열린다. 성악 부문 초등부 3·4학년 경연을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광주일보사가 창간 직후 지역문화창달과 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최하기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현재 각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을 키워낸 모태였다.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이 55만여명에 이르고 특히 강세를 보여온 음악과 무용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교육자로, 연주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씨를 비롯해 길예령(목포대), 김혜경·서영희(조선대), 박미애(광주대), 조수현(광신대) 등이 호남예술제를 거쳐갔다.

최근에는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2006년 에피탈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호열, 2008 파리 토티보 콩쿠르 1위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씨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 광주시립교향악 오디션을 통과해 정식 협연 무대를 가졌던 플루티스트 최지혜씨와 첼리스트 장소희씨도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인 호남예술제가 28일부터 한달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 54회 호남예술제 국악 경연. <광주일보 자료사진>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예술 꿈나무 등용문 광양서도 경연...국회의장상·문광부장관상 수여

무용 부문에서는 박준희·임지형·김미숙(이상 조선대) 교수와 이영애·김유미씨 등 전·현직 광주시립무용단장, 정혜경 광주무용협회장, 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올해는 광주 뿐 아니라 광양에서도 처음으로 작문·미술 부문 경연을 실시하는 등 규모가 확대됐다.

광양 행사는 매년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광양시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연이다. 광양 출신으로 '매천야록'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황현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명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순국했다.

미술·작문 경연은 광주 지역의 경우 5월 27~28

일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열리며 광양대회는 24일 광양 우산 근린공원에서 개최한다. 참가 신청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13일까지다.

그밖에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새싹 그리기' 대회는 오는 6월 1~22일까지 작품을 공모할 예정이다.

각 부문 최고상 가운데 국회의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부문별 입상자는 경연 당일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wangju.co.kr)와 다음날 광주일보 문화면에 게재한다.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카

광주에 시향(市響)은 없다?

"매년 전국 교향악 축제를 즐기는 음악팬입니다. 올해는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부천필)의 티켓을 끊었습니다. 예그먼트 서곡 연주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나 현악파트가 좋은지, 국내 교향악단에서도 이런 유려한 음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천필', '부천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2010 전국교향악 축제의 공연후기중)

해마다 4월이 되면 전국의 교향악단들은 때아닌 울림중에 시달린다. '전국 교향악축제' 때문이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교향악 축제는 전국의 교향악단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지방교향악단들에게는 꿈의 무대다. 수도권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만약 관객들과 통할 경우 '전국구 스타'로 부상할 수 있다. '부천필'이 바로 그 좋은 사례다. 지방 오케스트라로는 이례적으로 전국 규모의 '부사모'(부천필을 사랑하는 모임)를 거느리고 있다.

부천필이 KBS·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빅3'로 불리게 된 계기는 교향악축제였다. 1988년 창단한 부천필은 이듬해 서울대 임현정 교수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한 후 탄탄한 연주실력을 통해 색깔있는 오케스트라로 변신했다. 지난 1990년 참가한 전국교향악 축제는 부천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평론가들은 브람스 교향곡 제3번을 연주한 부천필의 맑고 유려한 현악의 음색에 찬사를 보냈다.

"2010 전국교향악 축제"가 지난 20일 부산시향의 폐막공연을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축제에는 전국의 18개 교향악단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광주시향(시향)은 올해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자칫 '광주는 시향(市響) 없는 도시'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상임지휘자를 구하지 못해 서울행을 접어야 했고 올해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구자범 지휘자를 영입했지만 5·18 30주년 기념 공연준비에 올인하느라 교향악축제에 나갈 여유가 없었다.

연유가 어땠든 시향의 '불참'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구자범 지휘자 부임후 시향은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취임식 연주회에서 시향은 말려 교향곡 1번 '거인'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많은 음악애호가들은 "광주시향이 내년에는 꼭 참가해 전국에도 '구자범 신드롬'을 일으켜 달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기대와 달리 구 지휘자는 지난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향악 축제는 (축제보다는) 경연대회나 발표회 같은 느낌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시향이 중앙무대로 올라가 수도권 관객들에게 연주를 하기 보다는 그들이 시향의 음악을 듣기 위해 광주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시향의 마니아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시향의 음악을 들려주는 기회를 갖는 게 순서다. '부사모'는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게 아니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부리한국무용단의 국화춤.

광주 춤의 아름다움 미국서 펼친다

부리한국무용단, 미국 '버지니아 국제 군악제' 참가

김미숙 조선대(체육대학 무용과)교수가 이끄는 부리한국무용단이 미국 '버지니아 국제 군악제'에 참가해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인다.

1997년 첫 행사를 개최한 '버지니아 국제 군악제(Virginia International Tattoo)'는 매년 4월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에서 30여 개국의 군악대가 참가해 열리는 국제 군악제다.

올해는 4월 30일~5월 2일까지 노퍽 해군기지 소재 스콧 아레나(Scope Arena) 공연장에서 미국·캐나다·네덜란드·한국·러시아·영국 공연단이 참여한다.

김미숙 무용단은 육군본부 계통대 소속 군악대와 함께 참가, 군악제의 개·폐막식을 장식하는 등 군악제 기간 동안 총 5차례 공연과 시가행진을 갖는다.

또 군악제에 앞서 한인교 교포2세 학생

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ONU 대학 퍼커스 극장(4월 27일)과 노퍽 크라이슬러 홀(4월 29일)에서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타대·정주구·관·전통무용이 어우러진 국악 마창을 선보인다. 또 5월 1일 나토사령부 주최로 열리는 시가행진에서는 대취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김미숙무용단 16명과 국악대의 장대, 가수 성시경 등 총 80명이 참가한다.

김미숙 부리 한국무용단은 허백련·심수관·김대건 신부의 삶을 담은 '부리깊은 나무' 시리즈를 무대에 올렸으며 벨기에·캐나다·텍사스 국제민속축제·영국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행사·터키 부부사시 민속춤 페스티벌 등 세계 각국의 민속축제에 참가, 한국춤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희홍기자 chae@kwangju.co.kr

호남 학자가 '영남학 역주서' 발간

전남대 신해진 교수 '아주신문' 관련 5권 펴내



호남지역 학자가 영남학의 형성 배경과 지성사 등을 다룬 수 권의 역주서를 출간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신해진(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주신문'(鵝洲申門·아주 신씨)과 관련된 역주서 '퇴재선생실기' '회당선생문집' '성은선생일고' '난적취찬' '창의록' 등 5권을 잇따라 출간했다.

이 책들은 고려조에 대한 총질 정신, 계유정난 생육신의 의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퇴재 신우 선생의 문집을 번역·해설하고 경남 의성의 향촌사를 살필 수 있는 인

물 등이 소개돼 있다.

'퇴재선생실기'는 고려말 '절의와 효성'의 표상으로 개성의 '두문동서원'과 의성의 '속수서원'에 봉향돼 있는 퇴재 선생의 문집을 번역하고 쉽게 해석했다.

퇴재 신우는 전라 안렴사를 지낸 인물로, 조선조 태조(이성계)의 형조판서 제의를 뿌리치고 당시 상주 만경산에 은둔했으며 3년간 부친 시묘살이를 한 자리에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았다는 것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리기도 했다.

신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는데서 호남과 영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역주서 발간은 영남학의 형성 배경과 민족 유정난 생육신의 의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퇴재 신우 선생의 문집을 번역·해설하고 경남 의성의 향촌사를 살필 수 있는 인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대속신으로 마르케 크루즈로 편안하게 새로운 제주여행

초대속 링크동원호+크루즈 퀘베리로
4월 26일~27일 선착순 20명

크루즈 타고 제주여행
4월 26일~27일 선착순 20명

아시아 특선반 여행 3월 31일~7일
선착순 20명 선착순 20명

1,000원의 행복 광주시티투어
4월 26일~27일 선착순 20명

꽃보따리를 꾸미는 봄여행

4월 26일~27일 선착순 20명

4월 28일~29일 선착순 20명

4월 30일~5월 1일 선착순 20명

광주출판 동도·북산도 1박2일 175,000원 - 광주출판 여행도·해도 1박2일 150,000원

꽃보따리 4월 26일~27일 선착순 20명

꽃보따리 4월 28일~29일 선착순 20명

광주출판 동도·북산도 1박2일 175,000원 - 광주출판 여행도·해도 1박2일 150,000원

꽃보따리 4월 26일~27일 선착순 20명

꽃보따리 4월 28일~29일 선착순 20명